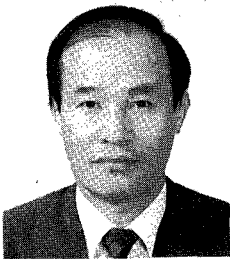


가금위생 해외뉴스

오경록 ◀코너



오 경 록
남덕 씨니테크

□ 산소, 오존 압축기

제임스웨이에서는 국제양계박람회에 새로운 기계를 소개하였다. 이 기계는 부화전에 종란을 압축된 진공상태에서 산소와 오존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특허등록 되었다.

이 방법에 의한 실험실 및 야외 시험에서는 부화율과 초생추 생존율이 향상되었다.

현재 미국 북캐롤라이나의 농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에서도 부화율이 향상되었다.

제임스웨이는 실용수준에서 여러번 시험을 거친 다음 금년말에 이 기술을 시장에 소개할 것이다.

(IIFP. 96. 4)

□ 정액 저장시간

스로바키아 보고서에서 닭의 정액을 수정전에 5℃에 저장한 뒤 인공수정 하였다.

저장했던 정액을 100수의 암탉에 인공수정하고 채정 후 즉시 100수의 암탉에 인공수정한 것과 비교하였다.

수당 100만개의 정자를 주입하고 수정은 매주 실시하였다. 수정율과 부화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24시간 동안 저장한 정액에서만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 저장시간 | 24 | 4 | 1 | 0.25 | 0.625 |
|---------|------|------|------|------|-------|
| 수정율 | 90.3 | 94.8 | 95.6 | 94.0 | 94.2 |
| 수정율(대조) | 95.9 | 94.2 | 93.0 | 93.9 | 93.3 |
| 부화율 | 77.7 | 85.7 | 87.4 | 85.2 | 88.3 |
| 부화율(대조) | 82.1 | 85.6 | 85.6 | 87.1 | 85.9 |

(IIFP. 96. 4)

□ 케이지당 사육수수와 생산성

2품종의 산란계로서 케이지의 사육수수에 따른 생산성을 조사하였다.

케이저 사육수수는 케이저당 6, 8, 12, 24수로서 수당 사육면적은 364.1cm², 급이기 면적은 수당 10.2cm²이었다.

헨데이 산란율과 난중, 사료소비량, 파란, B급란, 소란, 대란에 대해서 품종간의 차이를 20주부터 72주까지 조사하였다. 품종과 케이저당 사육수수간의 상관관계는 없었다.

A급란과 파란율, 사료소비율은 사육수수별로 뚜렷한 영향을 받았다.

케이저당 8수 사육의 경우에 A급란의 생산이 많았고 파란율이 낮았다. 사료소비율은 케이저당 12수, 24수의 사육에서 현저히 높았다.

(Poult sci. 74)

□ 살모넬라 엔트리티디스균 파지형 분류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덴마크에서 분리된 736개의 살모넬라 엔트리티디스균을 분류하였다.

이 균주는 식품, 환자, 도계육, 산란계, 부화장, 소에서 분리된 것이다.

파지형 (PT) 1이 57.69%이며, 파지형 4는 28.8%이었다.

파지형 8은 수입계에서만 발견되었으며 사람에게서 분리된 균주는 파지형 4가 61.8%, 파지형 1이 17%이었다.

(IHP. 96. 4)

□ 정액중의 세균수

정액중의 세균수 측정과 세균을 분리한 결과 세균수는 평균 ml당 5.14 Log¹⁰ CFU이었다.

대부분 분리되는 세균종류는 대장균, 포도상

구균, 구균, 살모넬라균 이었다.

연구자는 이들 세균이 양계장에 분포된 일반 세균으로 닭에게는 풍토적인 것이라 하였다.

(IHP. 96. 4)

□ 종란의 자외선 소독

종란의 소독에 이용되는 호르말린을 대체하기 위하여 자외선을 이용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목적은 소독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한 자외선의 최소 노출수준과 노출시간을 파악하고 종란저장실에서 자외선을 사용하는 방법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시험은 720개의 계란에 자외선을 조사하고 자외선등의 높이에 따른 16가지의 조사시간을 무처리대조와 1% 호르마린 처리 계란과 각각 비교하였다(2.5cm에서 5초부터 20cm에서 40초까지).

세균수는 계란의 5cm높이에서 자외선 조사시 10초후에 세균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자외선등은 종란실의 자동집란벨트에서의 32,000개의 종란에서 720개의 종란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세균수를 측정하였다.

자외선에서 노출된 종란의 난각의 세균수는 399cfu/cm²로서 무처리 종란의 705cfu/cm²보다도 적었다.

더욱이 집란벨트의 세균수는 뚜렷하게 감소하였으며 부화결과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발육란을 파각하여 계태아 발육상태를 비교 확인하였으나 자외선에 의한 태아발육의 영향은 없었다.

(WP. 96. 4)